

계속된 가뭄에 시 겹쳐...밥상물가 고공행진

계란 68%·오징어 59% 폭등 양파, 생산량 감소로 50% ↑ 닭고기·돼지고기·수박 급등 노지채소 가격도 계속 올라

계속된 가뭄으로 양파 등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마저 겹쳐 축산물 값도 꿈틀거리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3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6월 상승 기준 평년보다 도매가격이 오른 품목은 11개, 하락한 품목 14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 역시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기상여건 악화로 가뭄 피

해가 심화하면서 일부 노지채소는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전체 양파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만생종 양파의 경우 현재 가뭄으로 수확이 최대 10일가량 지연돼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기대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9일 현재 양파 도매가격은 20kg당 2만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 급등했다.

양파 수확기의 높은 가격은 수확이 이후(7월~이듬해 3월)에도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중국산 등 수입 물량이 증가로 인한 국산 양파의 자급률 감소로 양파산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저장업체, 수급관리기관이 함께 2017년산 양파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긴급 수급대책회의도 개

최했다.

배추의 경우 봄배추는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나, 가뭄이 지속되고 폭염 피해까지 더해지면 고랭지배추 주산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매뉴얼에 따라 기상피해에 대비한 배추 예비묘 150만주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뭄에 대비해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실시간 생육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산지기동반'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올라 올해 1월(8.5%)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축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11.6% 올라 2014년 6월(12.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작년보다 67.9% 급등했다. 계란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도 7.6%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전년 대비 19.1%, 12.2% 올랐다. 전월과 비교해도 각각 5.5%, 7.5% 상승했다.

수산물 물가도 전년 대비 7.9% 뛰었다. 채소, 과일, 어패류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는 지난달 5.6% 올랐다. 신선과실 물가는 19.7% 올라 2011년 4월(20.3%)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는 오징어(59.0%), 수박(17.1%), 포도(10.9%) 등이 눈에 띄게 올랐다.

계란(특한 30개 기준)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9일 7967원으로 1년 전(5119원)과 비교해 55.6% 뛰었다. 1개월 전(7879원)과 비교해도 소폭 오른 상태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사상 최고치 갱신 코스피 숨고르기 美 연준 연방공개시장위 회의 주목 전통적 배당주·대기업 우선주 관심

코스피지수가 2,380선을 넘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지수도 5일 연속 상승하며 674.15포인트로 연중최고치로 마감했다. 미국트럼프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증언과 영국 총선에서 집권당패배 등 글로벌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영향은 크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자는 지난주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8,249억원과 코스닥시장에서 1,6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강세와 함께 지난주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네이버가 시가총액 31조원을 넘기면서 한국전력을 제치고 시총 4위로 올라섰다. 지난 4월부터 코스닥지수 저점 확인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던 데 외국인과 기관 선호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지수의 추가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코스닥업종내 순환매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기 급등한 종목에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인력을 배제하고 기금의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슈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슈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사결정 행사지침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단순한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기금, 펀드가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2016. 12. 29)'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슈튜어드십코드 시행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은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비춰볼 때 가장 먼저 기대되는 변화는 배당성향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인데 최근 시장에서 관련주가 주목 받고 있다.

이번주는 13~14일 열리는 6월 FOMC회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한국 6/15, 새벽 3시종료)에 주목해야 한다. 3개월만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경기선행 지표들의 둔화를 감안해 연말까지 추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내 추가금리 인상이나 과도한 보유자산축소를 암시하며 시장의 비틀기파적인 컨센서스에 균열이 가해진다면 그 동안 형성되었던 달러약세, Non-US 자산 강세구도는 흔들릴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이 큰 국내증시에도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6월 FOMC에 대한 경제감각과 최근 급락한 유가의 추가하락 우려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와 단기 급등한 코스닥지수는 주초 숨고르기를 보인 후 FOMC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된다. 주도주의 상승세가 추종한 가운데 슈튜어드십코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전통적 배당주와 대기업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실적모멘텀이 증가한 유통 바이오 증권 등 내수주와 코스닥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광주학생·교사 초경 프로야구 경기 관람 NH농협 광주본부

NH농협 광주본부(영업본부장 김귀남)는 지난 9일 광주 지역 학생 및 교사 7300여명을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로 초청해 KIA와 넥센 간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로 관람했다.

2015년부터 해마다 NH농협 광주본부는 지역 학생 등에게 야구관람을 후원했고, 지난 2015년에는 1850명, 2016년 6500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야구 경기를 보여줬다.

NH농협 광주본부는 이들에게 관람권과 응원봉 5800세트를 누리문화재단을 통해 후원했고, 박태선 지역본부장 및 광주본부 직원들은 경기장 출입구에서는 사제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찍는 카메라로 촬영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남해화학, 무안 양파농가 일손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지난 9일 무안군에서 전남농협 범농협임직원 100여명과 남해화학(대표이사 이광록) 임직원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는 '범농협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심한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촌현장에 농협 임직원이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무안군 현경면과 운남면의 마늘, 양파 농가를 방문하여 줄기 제거 작업 등을 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지난 4월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0여건의 농촌 일손돕기와 가뭄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인력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록기자 kroh@


농어촌공·광주여성경제인협, 여성기업 동반성장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회장 이숙희)는 지난 8일 농어촌공사에서 여성기업의 공공관료 확대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여성기업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공사의 구매제도를 설명하고 여성기업 건의사항 청취와 토의시간을 가졌다. 여성기업의 주요 건의사항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촉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촌공사는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여성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3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룸 36개 5층건물 1층 커피전문점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 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1중주거지역 슬로우 시티 옆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 1326㎡ 상가건물, 창고 적합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만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게임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경매 추천 물건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만 ▶ 최저가 17억 5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